

2021년 2월 14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하다 Peter Denies Jesus Three Times
마가복음 Mark 14:66-72

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And as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And seeing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at him and said, “You also are with the Nazarene, Jesus.”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그리고 그 닭이 울더라.]
But he denied it, saying,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mean.” And he went out into the gateway [and the rooster crowed.]
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And the servant girl saw him and began again to say to the bystanders, “The man is one of them.”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But again he denied it. And after a little while the bystanders again said to Peter, “Certain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But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and to swear, “I do not know this man of whom you speak.”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And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a second time. And Peter remembered how Jesus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사람은 “시선을 의식할 때”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시선이 어떤 종류인가, 거기 달렸습니다. 일종의 “세포”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그 세포의 분열을 일으키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시선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시선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핏박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세계 교회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몇 사람에 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그를 “제1대 교황”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정확하게 신앙고백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Simon Peter repli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마태복음 Matthew 16:16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지극히 미약한 자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장담한 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졸장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의 실존을 전부 흔들버렸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mean.

마가복음 Mark 14:68b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아닙니까?

같은 여종이 그런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재차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대단히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this man of whom you speak!

마가복음 Mark 16:71b

바로 그 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 닭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른 장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But Peter said, "Man, I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 rooster crowed.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to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saying of the Lord, how he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누가복음 Luke 22:60-62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르면 닭 소리가 베드로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신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선.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일시적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선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All the ways of a man are pure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the spirit.

잠언 Proverbs 16:2

주님의 시선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베드로를 지키심입니다. 그의 문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 베드로를 낮추심입니다. 인간이 본래 낮은 존재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를 이렇게 낮추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질문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생각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And you shall remember the whole way that the Lord your God has led you these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that he might humble you,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신명기 Deuteronomy 8:2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And he humbled you and let you hunger and fed you with manna, which you did not know, nor did your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신명기 Deuteronomy 8:3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마태복음 Matthew 4:19

예수님의 부르심의 빛에서 볼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상대하며 평생 보낼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사함 받지 않고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 자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일에 취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 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귀하고 귀하며, 소중한 축복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북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상연되는 오페라 “세비야/세빌리아의 이발사” 내용을 대략 읽어보았습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성경책 읽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거의 줄줄 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나타난 메시지는 참 사랑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은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유행가도 사람의 마음을 허물어버리는 역기능이 있지만, 어떤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Truly, truly, I say to you, an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요한복음 John 5:25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looks on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John 6:40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is no help at all.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요한복음 John 6:63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And as Peter was below in the courtyard, one of the servant girls of the high priest came.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을 때,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산헤드린의 “청문회”(hearing)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고독하게 싸우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침묵”으로써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들 틈에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무시해도 좋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전합니다.

67. 베드로가 불을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And seeing Peter warming himself, she looked at him and said, “You also are with the Nazarene, Jesus.”

예수님께서 서슬이 퍼런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둘러싸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같은 시각에,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아래 뜰
중심인물	예수님	베드로
배경	죽음 공포	불을 쪼다

사람들	공의회 회원들	여종들, 행인들
메시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이 뚜렷한 대비 중에 베드로의 본래 모습이 스케치 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무명의 어떤 여종이었습니다.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그리고 그 닭이 울더라]
But he denied it, saying,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mean.” And he went out into the gateway [and the rooster crowed.]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는 그의 말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리고 그 닭이 울더라” 라는 본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차례 닭이 우는 장면이 묘사된 것입니다.

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And the servant girl saw him and began again to say to the bystanders, “The man is one of them.”

그 여종이 곁엿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그저 행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The man is one of them!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베드로가 당할 해는 없습니다.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But again he denied it. And after a little while the bystanders again said to Peter, “Certain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 are a Galilean.”

그런데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말로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두 번째이므로 첫 번째보다 더 강했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두 번째 하는 말이, “분명히!” 라고 강점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일은 진행될수록 그 강도를 높여야 하는 악순환의 원리가 작동하는 법입니다.

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But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and to swear, “I do not know this man of whom you speak.”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 종의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그 저주란, “십자가 처형이 마땅하다!”는 저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받은 자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For a hanged man is cursed by God.

신명기 Deuteronomy 21:23c. 참고. 갈라디아서 Galatians 3:10-13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걸머지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72.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And immediately the rooster crowed a second time. And Peter remembered how Jesus had said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ree times.” And he broke down and wept.

여기서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본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 곧 68절 말미에 “그리고 그 닭이 울더라”는 삽입구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그 없는 사본을 택했습니다.

주중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출연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그 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CCSF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참여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읽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자이셨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시편 23:1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오히려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칼이 목자를 찢습니다. 목자에게 절대 의존 되어 있던 양이 흩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그대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베드로가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영혼이 그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여태까지 주장하던 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아무런 힘도 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자기의 의를 더 이상 내세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는 “자기 확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를 “목자”로서 이끌어주실 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Since therefore Christ suffered in the flesh,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way of thinking, for whoever has suffered in the flesh has ceased from sin. So as to live for the rest of the time in the flesh no longer for human passions but for the will of God. For the time that is passed suffices for doing what the Gentiles want to do, living in sensuality, passions, drunkenness, orgies, drinking parties, and lawless idolatry.

베드로전서 1 Peter 4:1-3

그 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뵈고,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 같은 부르심을 다시 입었습니다.

십계명 돌 판을 새롭게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번 깨뜨려진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heaven? This Jesus, who wa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 into heaven.”

사도행전 Acts 1:11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ribes of the earth will wail on account of him. Even so. Ame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7

나는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으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그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거룩함이니라.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레위기 Leviticus 19:2b

거룩한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대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 깊은 전통과 가치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입니다. 정보의 홍수에 모두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성경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You shall go out leaping like calves from the stall.

말라기 Malachi 4:2

가만히 있던 우리가 뛰어나갑니다. 애굽 땅에 종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자루에 넣어 메고 급하게 나갑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령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납니다.

오늘 죽은 심령으로 좀비처럼 버티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시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 그 시선을 오늘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눈동자 그 빛을 주목합니다. 이제 뒤돌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the lamp to my feet, the light to my path.
시편 Psalm 119:105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